

연주현씨대종회 역대 사업

통합 정리안

작성 기준일: 2026년 6월 22일

이 문서는 「대종회70년_사업」을 기본 자료로 삼고, 「연주현씨회보」 제44호·제45호·제46호와 2023~2026년도 정기총회 책자의 업무보고, 사업계획, 보고사항을 대조하여 새로 정리한 통합안입니다. 기존 자료에 반복되는 정기총회 개최 사실, 회계표, 참석자 명단 등은 과감히 줄이고, 대종회의 역사적 사업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묶었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전자족보, 70년사, 유네스코 등재 추진처럼 최근 자료에서 새로 확인되는 사항은 보완하였습니다.

통합 정리의 원칙

- 기존 「대종회70년_사업」의 다섯 축, 즉 사무실 조성, 족보 편찬, 경헌사, 현씨 조형물, 장학사업을 기본 골격으로 삼았습니다.
- 2023년 이후 새로 추진되거나 구체화된 사업은 별도 항목으로 보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70년사 편찬, 스마트족보 플랫폼, 홈페이지·족보 데이터 보완, HYUNCNET, 900년사/70년사 2단계 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같은 내용이 총회 책자와 회보에 반복될 때에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만 정리했습니다.
- 정기총회·이사회·회장단협의회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절차로 보아 필요한 경우에만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역대 사업 요약표

구분	시기	핵심 내용	현재 의미·후속 과제
----	----	-------	-------------

종무 기반·사무실 조성	1981~1999, 이후 관리	대안유화 사무실에서 종무를 시작해 순흥빌딩, 세종빌딩, 진양빌딩을 거쳐 1999년 당주동 미도파빌딩 604·605호를 매입하였다.	대중회 운영의 물적 기반. 605호 임대 등 자산 관리를 통한 운영재원 확보가 계속되고 있다.
족보 편찬·전자족보	1982~현재	7수보 임술보, 8수보 경진보, 9수보 정유보 전자족보를 거쳐 홈페이지 기반 인터넷 족보와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족보 데이터 오류 수정, 홈페이지 보완, 대중회 직영 관리체제, 앱 개발, 수단 참여 확대가 후속 과제다.
경헌사·제향 사업	1948~현재	분단 이후 남녘 후손들이 시조 경헌공을 모시기 위해 천안 풍세면 용정리에 사판을 세우고, 1988년 재실·삼문 등을 신축하였다.	춘향제·추향제를 비롯한 송조 사업의 중심. 지역 문종과 연계한 선조 유적 탐방 사업으로 확장 중이다.
대전 뿌리공원 현씨 조형물	2007~2008	대전 뿌리공원에 연주현씨 상징 조형물인 송조탑을 건립하고 2008년 9월 9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단일 본관과 현씨 문종의 뿌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물이다.
장학·인재 육성	1982~현재	1982년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1년 장학재단	매년 2명 안팎의 대학생을 추천·선발하여 인재

		창립 발기를 거쳐 현위헌관장학재단 추천 장학생 선발이 지속되고 있다.	육성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보·달력·온라인 소통	1982~현재	1982년 「대운」 창간, 회보 발간, 달력 제작, 홈페이지 운영, SNS 소통으로 종친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넓혔다.	종원 소식, 지역종친회 활동, 선조 자료, 대종회 사업을 연결하는 기록·홍보 플랫폼이다.
창립 70주년 기념·역사기록	2023~현재	창립 70주년 기념식, 70년사 편찬, 현씨찬가 제작, 스마트족보, 근현대 인물 발굴을 추진하였다.	900년사/70년사 2단계 사업, 계파별 검증회의, 홈페이지 등재, 책자 발간 준비로 이어진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협력	2025~현재	연주현씨 족보를 한국 족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흐름 속에서 소개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족보 자료의 문화유산적 가치 정리와 대외 협력이 후속 과제다.

1. 종무 기반 확립과 대종회 사무실 조성사업

1-1. 사업의 의의

대종회 사무실 조성사업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마련한 일이 아니라, 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종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중심 공간을 확보한 사업이었다. 1981년 종친회 창립 직후에는 명호 종원이 무상 제공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대안유화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종혁 상임부회장의 소유인 종로구 신문로1가 순흥빌딩 302호로 이전하여 1996년까지 약 16년간 종무를 이어갔다.

1-2. 회관 건립기금 모금과 종대 매입

1989년 임원전체회의와 이사회에서 종친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되었고, 1990년 5월 27일 연주현씨종친회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회관건립기금 모금운동이 시작되었다. 대중회 임원과 각 지역 종친회가 모금에 앞장섰고, 종혁 상임부회장 5,300만 원, 공수·문숙·승일·이복·하룡 등 임원진의 1,000만 원 기탁을 비롯하여 전국 종원들의 출연이 이어졌다. 1996년 9월 말 기준 1억 2천여만 원의 기금이 모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12월 6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빌딩 6층 604호·605호를 매입하였다. 1999년 12월 20일에는 사무실 이전과 현판식, 고유제를 거행하였다.

1-3. 사무실 이전·운영 경과

- 1981년 2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대안유화 사무실에서 종무 개시.
 - 1981년 7월 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순흥빌딩 302호로 이전, 현판식 거행.
 - 1989년 7월 14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임원 구성.
 - 1989년 9월 26일: 이복 회장의 발의로 대중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결의.
 - 1990년 5월 27일: 연주현씨종친회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모금운동 시작.
 - 1996년 12월 8일: 대동보 편찬 업무를 위해 세종빌딩 502-C호로 이전.
 - 1997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진양빌딩 3층으로 이전.
 - 1999년 12월 6일: 미도파빌딩 604호·605호 매입.
 - 1999년 12월 20일: 대중회 사무실 이전, 현판식 및 고유제 거행.
 - 2022년 6월 1일: 대중회 종재 605호 사무실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수입 기반을 회복하였다.
- 이 사업은 물적 기반이 약했던 대중회가 종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단합으로 종무의 중심 공간을 마련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후 대중회 사무실은 회장단협의회, 이사회, 신년하례회, 전자족보와 홈페이지 운영, 70년사 편찬회의 등 주요 종무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2. 족보 편찬·전자족보·스마트 플랫폼 사업

2-1. 족보 편찬사업의 흐름

연주현씨 족보는 1747년 정묘보를 초간보로 하여 이후 여러 차례 증보되어 왔다. 1981년 대중회 창립 이후 대중회가 주관한 주요 족보 편찬사업은 1982년 7수보 임술보, 2000년 8수보 경진보, 2017년 9수보 정유보 전자족보로 이어진다. 특히 9수보는 기존의 서책 중심 족보에서 벗어나 DVD 전자족보로 제작되었고, 이후 홈페이지와 연계되면서 인터넷 족보와 스마트 플랫폼의 기반이 되었다.

2-2. 8수보 경진보 편찬과 송조사업회 발족

8수보 경진보 편찬사업은 1994년 정기총회에서 대동보 편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6년 편찬위원회 임원 선임과 헌판식·고유제를 거쳐 전국 수단작업이 진행되었고, 1999년 5월 30일 수단을 마감하였다. 수단 접수 종원이 등록 종원의 87%에 이를 정도로 참여가 높았으며, 2000년 8수보 3,300질을 출간하였다. 2001년 4월부터 분질을 시작하고, 주요 국공립도서관에도 기증하였다. 편찬사업 잉여금은 이후 송조사업 기금으로 활용되었고, 2006년 정기총회에서 연주현씨 송조사업회 발족이 의결되었다.

2-3. 9수보 정유보 전자족보 편찬

2013년 창립 60주년 정기총회에서 9수 대동보·전자족보 편찬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 전자족보를 추진한 이유는 한자 중심 서책 족보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출생·혼인·사망 등 종원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갱신하며, 파보·세보·가승 등 여러 족보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3년 전자족보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단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수 대동보·전자족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7년 2월 전자족보 DVD 5,000부를 인수하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전자족보 편찬 과정에서는 계보 조정 문제도 다루어졌다. 중랑장공 호자파 일부 후손의 계보 분류 문제가 제기되어 2015~2016년 여러 차례 조정회의와 회장단협의회를 거쳤고, 2016년 정기총회에서 찬성공파에서 중랑장공 호자파로 계보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2-4. 인터넷 족보와 문중 스마트 플랫폼

2019년 제2차 이사회에서 전자족보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인터넷 족보를 운영하기로 승인하였다. 2020년 1월 대종회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기존 전자족보 데이터의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졌다. 2021년에는 전자족보 수단과 본관 정정 추진계획이 의결되었고, 2022년에는 종원관리 시스템, 전자족보, 멀티미디어 족보 서비스를 갖춘 홈페이지 개선 예산이 승인되었다. 2023년 정기총회에서는 문중 스마트 플랫폼 서비스 구축이 보고·시연되었다. 이 플랫폼은 수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족보 반영을 빠르게 하고, 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서전 성격의 자료까지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2-5. 2025~2026년 보완 과제와 차세대 플랫폼

2025년에는 대종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1차 마무리와 홈페이지 등재, 차세대 먹거리 사업 아이디어, 현씨휴먼네트워크 프로젝트(HYUNCNET) 인프라 구축 방안이 회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되었다. 2026년 사업계획에는 족보 데이터와 홈페이지 수정 보완 마무리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촌수 계산 오류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점, 홈페이지 관리회사를 태신미디어에서 루브넷으로 변경하여 전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점, 장기적으로 홈페이지와 족보 데이터를 대종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내부 실험용 베타앱 개발 착수, 촌수 계산 기능, 전자족보 등재를 기반으로 한 인물 동영상, 지역 비즈니스, 현씨장터 등 확장 구상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족보 사업이 단순한 자료 보존을 넘어 종원 네트워크와 미래형 문중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경헌사 조성·제향·선조 유적 계승사업

3-1. 경헌사 설립의 배경

시조 경헌공의 묘는 본래 연주에 있었으나 후손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묘역을 잃었다가, 후손들의 노력으로 다시 찾았다는 전승이 전한다. 그러나 1945년 이후 국토가 분단되면서 남녘의 후손들이 북쪽 묘역에 참배하기 어려워졌고, 1948년 10월 1일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에 시조 경헌공의 신위를 모셨다. 이후 매년 음력 3월 1일 춘향제와 음력 10월 1일

추향제를 봉행하며 화수의 정을 나누어 왔다.

3-2. 재실·삼문 신축과 경헌사 정비

세월이 지나면서 재실과 묘역 보수 필요성이 커졌고, 1988년 11월 9일 경헌사 재실 신축과 삼문 설립에 따른 낙성식과 추향제를 거행하였다. 자료에는 사당 14평, 재실 21평, 삼문 5평, 수직사 30평, 부지 1,000평 규모로 정리되어 있다. 경헌사에는 시조 경헌공을 비롯한 선대 신위가 배향되어 있으며, 현재도 대종회 승조사업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3-3. 제향 참석과 선조 유적 탐방으로의 확장

2023~2025년 정기총회 자료에는 경헌공 춘향제·추향제 참석, 제주목사공 입도조 시제 참석, 영암 사직공파 시제, 전객령공파 남양주 시제, 중랑장부사직공파 시제, 남해현령공파 옥량공 시제 등 다양한 지역 문중 행사 참석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2025년 사업계획에는 선조문화·유적탐방 계획이 별도로 제시되었고, 2026년 사업계획에서는 예천 옥량공 시제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 영암, 연천 등 사적을 보유한 지역을 우선 방문하여 전국 현씨 사적 탐방루트를 형성한다는 장기 목표가 제시되었다.

4. 대전 뿌리공원 현씨 조형물 건립사업

4-1. 사업 추진 배경

대전 뿌리공원은 효 문화를 주제로 각 성씨의 상징 조형물을 세운 공간이다. 2007년 대전시 중구청이 뿌리공원 확장과 성씨 조형물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 연주현씨 대전종친회가 이 사업을 신청하였다. 2007년 11월 대종회 회장단이 현장을 실사한 뒤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고 대종회 차원의 조형물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2. 건립위원회 구성과 준공

2007년 12월 4일 대전 뿌리공원 조형물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8년 정기총회에서는 조형물 건립 예산 5천만 원이 의결되었고, 각 지역종친회와 대종회 임원이 기금 모금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조형물 건립기금은 9,750만 원에 이르렀고, 2008년 8월 승조탑이

설치되었다. 2008년 9월 9일 대전 뿌리공원에서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대종회 임원단은 같은 해 10월 대전 효문화축제에도 참석해 송조탑을 참배하였다.

4-3. 조형물의 의미

송조탑에는 “千枝一根”, “萬波同源”, “積善之家 必有餘慶”의 문구와 연주현씨 유래, 현씨 휘장 로고의 상징 해설이 담겼다. 중심의 큰 원은 한 뿌리, 단일 본관, 우주의 중심을 뜻하고, 세 개의 작은 원은 천지인 삼원과 조화를 상징한다. 이 조형물은 현씨가 연주를 단일 본관으로 천년에 가까운 세계를 이어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 사업이다.

5. 장학·인재 육성사업

5-1. 장학사업의 출발과 장학재단 구상

대종회는 장학재단 설립 이전에도 성적이 우수한 종원 대학생에게 비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1982년에는 서울대 사학과 입학생 재복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기록이 있다. 2011년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는 문중의 동량을 발굴·양성하고 현문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대종회 장학재단 창립 발기가 의결되었다. 장학재단 기금은 최소 10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금 부족으로 독립 재단 출범과 본격 수여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5-2. 현위헌관장학재단과 연계한 장학사업

2014년 위헌 대종회 고문이자 현위헌관장학회 이사장이 1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하면서 장학사업의 기반이 크게 보강되었다. 2015년부터는 현위헌관장학회에서 대종회 추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대종회가 종문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현위헌관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매년 2명 안팎의 장학생을 추천·선발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5-3. 장학생 선발·수여 현황 보완

연도	주요 내용
1982	서울대 사학과 입학생 재복에게 장학금 수여.

2011	정기총회에서 대중회 장학재단 창립 발기 의결, 장학회추진위원회 구성.
2014	위헌 고문이 장학기금 1억 원 회사, 장학기금 1억 3천여만 원 확보.
2015	현위헌관장학회에서 대중회 추천 장학생 2명에게 장학금 수여.
2016	대중회가 종문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 수여.
2018~2023	현위헌관장학재단이 대중회 추천 대학생 2명에게 매년 장학금 수여.
2023	현보람, 현지현 장학생 추천.수여.
2024	현민섭, 현연주 장학생 추천.수여.
2025	현규림, 현지윤 장학생에게 각 400만 원 지급.
2026	현효종, 현해섭 장학생에게 각 400만 원 지급. 2027년 장학생 선발 추천도 2026년 12월~2027년 1월로 계획.

이 장학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종원 자녀들이 문중의 역사와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현문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향후에는 독립 장학기금 확충,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 장학생의 대중회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6. 회보·달력·홈페이지·SNS 소통사업

6-1. 회보 발간과 종친 소식 공유

대중회는 1982년 3월 1일 연주현씨회보 「대운」 창간호 3,000부를 발행하면서 문중 소식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회보는 대중회 사업 보고, 지역종친회 동정, 선조 유적과 인물 발굴, 종친의 경조사와 미담, 장학·포상 소식 등을 공유하는 매체가 되었다. 2022년에는 제41호와 제42호를 각 2,000부 발간하였고, 2023년에는 제43호와 제44호를, 2024년에는 제45호를, 2025년에는 제46호를 통해 대중회 주요 소식과 사업 결과를 전했다. 최근 정기총회 자료에는 회보를 상·하반기로 발간하고, 대중회 임원, 지역종친회, 해외종친회,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배부한다는 계획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6-2. 홈페이지와 온라인 종무

2019년 제2차 이사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족보를 운영하는 안건이 승인되었다. 2020년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전자족보 열람, 회의자료 게시, 종원 소통의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정기총회를 영상총회로 개최하고, 회의자료를 홈페이지와 임원 단톡방에 공유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2023년부터는 스마트족보 플랫폼을 통해 종원관리, 수단, 멀티미디어 자료 서비스가 더해졌다. 2026년에는 홈페이지와 족보 데이터의 오류 보완, 관리회사 변경, 직영관리 전환 등이 주요 과제로 정리되었다.

6-3. 달력 제작과 정기 안내

대중회는 회보와 함께 매년 달력을 제작·배부하여 종원 간 연결을 이어 왔다. 2022년에는 2,000부를 제작·배포하였고, 2023년에는 1,500부, 2025년에는 2026년 달력 2,000부를 제작하여 대중회 임원, 일반 종친, 지역종친회, 연관 단체와 개인에게 배포하였다. 달력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향일, 대중회 행사, 문중의 상징을 공유하는 생활 속 종친 매체의 역할을 한다.

6-4. SNS와 기록 공유

2026년도 정기총회 회장 인사말에는 대중회 소식과 기록을 대중회보와 SNS를 통해 종친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 회보 발간과 온라인 소통이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향후 회보, 홈페이지, SNS, 전자족보, 영상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종친 참여와 기록 보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7. 창립 70주년 기념사업과 역사기록 사업

7-1.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포상

2023년 3월 23일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연주현씨대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2023년도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137명이 참석하였고, 자랑스런 연주현씨 영상 관람,

기념 축하 떡 절단, 창립 70주년 기념 포상, 현씨찬가 합창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자랑스런 연주인상 2명, 공로상 17명, 감사패 11명, 효자효녀상 2명 등 총 32명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대중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연주현씨대중회 창립 70년사 발간이 결정되었다.

7-2.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23년 제정된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대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되었다. 추진사업은 ① 연주현씨대중회 70년사 발간, ② 스마트족보사업, ③ 현씨 근·현대사 인물 발굴사업, ④ 회장단협의회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으로 결정한 기타 사업으로 정리되었다. 추진위원장은 대중회장이 맡고,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지도위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7-3. 70년사 발간 사업

70년사 발간 사업은 대중회 창립 이후 70년간의 기록을 정리하고, 연주현씨 역사·인물·대동보 발간사·주요사업·지역종친회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23년 계획에서는 발간부수 1,000부, 분량 700쪽 내외, 소요예산 1억 5천만 원이 제시되었으며, 광고와 찬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2024년 정기총회 책자에는 자료수집 추진 현황이 정리되어 있으며, 대중회 주요사업 항목으로 7·8수보와 9수보 전자족보, 천안 경헌사 조성, 대중회 사무실 조성, 대전 뿌리공원 현씨 조형물, 장학사업 자료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안내문에서는 책자 인쇄는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우선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여 대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7-4. 현씨찬가 제작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현행복 종친이 현제명의 「조선의 노래」를 개사해 「연주현씨 찬가」를 제작하였다. 2023년 정기총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씨찬가를 함께 부르며 기념식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대중회 구성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상징 노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체성 강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7-5. 900년사/70년사 2단계 사업

2026년 사업계획에는 900년사/70년사 2단계 사업이 제시되었다. 1단계에서는 자료 발굴과 일부 기금 모금이 이루어졌고, 2단계에서는 자료 추가 발굴, 계파별 월별 검증회의, 책자 발간용 기금 모금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최종 목표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책자 발간, 계파·문중·지역 등 발간 범위를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의 발간 체계로 정리되었다.

8. 지역종친회 교류·포상·종무 운영사업

8-1. 지역종친회와 계파 모임 연계

대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중심의 중앙 종무뿐 아니라, 지역종친회와 계파 모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종친 간 결속을 다져 왔다. 2023년 이후 자료에는 제주목사공 입도조 시제, 제주거로파 시제, 제주도친족회 한마당 축제, 경헌공 춘향제·추향제, 영암 사직공파 시제, 전객령공파 남양주 시제, 중랑장부사직공파 시제, 남해현령공파 옥량공 시제 등 다양한 현장 참석이 기록되어 있다. 2026년도 회장 인사말에서도 제주, 천안, 예천, 대구, 부산, 남양주, 대전 등 여러 지역의 종친회와 계파 모임, 시제와 행사를 찾아가 대중회 공동체의 힘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8-2. 포상과 자랑스런 연주인상

대중회는 문중의 명예를 높인 종친과 대중회·지역종친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종친을 포상해 왔다. 자랑스런 연주인상은 2013년부터 수여되었으며, 2023년에는 전 탁구국가대표 한정화 종친과 전 농구국가대표 현주엽 종친이 수상자로 추가되었다.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공로상, 감사패, 효자효녀상 등도 함께 수여하여 종친의 활동과 헌신을 기록으로 남겼다.

8-3. 종약·조직 정비와 참여 확대

대중회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종약과 조직 운영도 함께 정비해 왔다. 2016년에는 운영위원회 신설, 이사 정원, 회장단협의회 등과 관련한 종약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6년 정기총회에는 종약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26년도 회장 인사말에는 한문 중심의 종약을

한글로 정리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여성 참여의 기반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대중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대와 성별의 참여 폭을 넓히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협력과 미래사업

9-1. 현씨족보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협력

2025년 업무보고에는 연주현씨족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기록되어 있으나, 주관 기관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공식 표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2025년 9월 11일 추진위원회 활동이 기록되었고, 기춘 부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언급되어 있다. 2026년 사업계획에서는 93개 문중 중 1순위로 소개되었다는 점과 추진위원회와의 협조 지속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9-2. 현씨휴먼네트워크 프로젝트와 차세대 먹거리

2025년 제2차 회장단협의회에서는 대중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1차 마무리와 홈페이지 등재, 차세대 먹거리 사업 아이디어, 현씨휴먼네트워크 프로젝트(HYUNCNET) 인프라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대중회가 족보와 회보, 지역종친회 중심의 전통적 활동에서 더 나아가, 종원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미래형 사업을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9-3. 앱·인물사·지역 연계사업 구상

2026년 사업계획은 내부 실험용 베타앱 개발, 촌수 계산 기능, 전자족보 등재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확장 구상을 담고 있다. 장기적 목표로는 광고 수주, 인물 동영상, 지역 비즈니스, 현씨장터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아직 구상 단계이므로 “완료 사업”이 아니라 “미래 추진 과제”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이 정확하다.

10. 종합 정리

연주현씨대중회의 역대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회 사무실 구성과 회관기금 모금으로 대표되는 물적 기반 확립이다. 둘째는 대동보 편찬, 전자족보, 스마트족보, 홈페이지·앱 개발로 이어지는 기록과 데이터의 계승이다. 셋째는 경헌사 제향, 뿌리공원 조형물, 장학사업, 회보와 포상, 지역종친회 교류를 통해 종친 공동체의 정신과 관계망을 이어온 활동이다.

2023년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대중회 사업은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미래형 문중 플랫폼을 설계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70년사와 900년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협력, HYUNCNET, 앱 개발, 선조 유적 탐방루트 형성 등은 모두 “기록 보존”과 “참여 확대”를 함께 지향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자료의 정확성 검증, 계파별 참여 확대, 재원 확보, 디지털 운영 능력 강화, 청년·여성 종친의 참여 기반 마련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조·확인 메모

- 2025년도 정기총회는 표지와 당해 자료에서 2025년 3월 27일(목)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2026년 자료의 요약에는 3월 27일(금)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 달력상 2025년 3월 27일은 목요일이므로 본문은 3월 27일(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부 자료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표기된 대목이 있으나, 주관 기관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 본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으로 통일했습니다.
- 「대중회보」 제44·45·46호는 이미지형 PDF로, 정기총회 책자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회보에 실린 창립 70주년 기념식, 기금 모금 안내, 회보·장학·시제·지역 소식 등은 중복을 피하여 관련 사업 항목에 흡수했습니다.
- 2026년 사업계획에 제시된 앱 개발, 현씨장터, 지역 비즈니스 등은 아직 완료 사업이 아니라 미래사업 구상으로 보아 별도 항목에 “구상·추진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 자료마다 인명 한자와 일부 날짜·장소 표기에 차이가 있는 항목은 사업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 이름과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원고 편집 단계에서는 원본

족보·회의록을 기준으로 한자 표기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대종회70년_사업」
- 「연주현씨회보」 제44호(2023. 7. 31.)
- 「연주현씨회보」 제45호(2024. 2. 29.)
- 「연주현씨회보」 제46호(2025. 12. 31.)
- 「연주현씨대종회 창립70주년 2023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 「연주현씨대종회 2024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 「연주현씨대종회 2025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 「연주현씨대종회 2026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